

#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한민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15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20.

발 의 자 : 한민수 · 박상혁 · 이춘석  
이연희 · 임오경 · 최민희  
서영교 · 박용갑 · 허종식  
안규백 · 한준호 · 이해식  
이해민 · 박균택 · 박해철  
황정아 의원(16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6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. 그러나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, 탈북학생 또는 다문화 학생의 경우 지원대상학생이 원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.

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한 학생의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 피해가 판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동의만으로 학교장이 판단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법률 제20671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

제3항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671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한 학생의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 피해가 판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동의만으로 학교장이 판단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법률 제20671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</p> <p>제11조(학생맞춤통합지원 등) ①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· ②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③ 교육감,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<u>&lt;단서 신설&gt;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④ ~ ⑥ (생략)</p>	<p>법률 제20671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</p> <p>제11조(학생맞춤통합지원 등) ①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③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<u>다만,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한 학생의 신체적 · 정신적 · 정서적 피해가 판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동의만으로 학교장이 판단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